

Petrobras, 유전개발 자원확보 비상

브라질 의회 국정조사 추진 ... 탈세 · 편법계약에 정치자금 제공 의혹

브라질 의회가 국영 석유기업 Petrobras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일간 에스타도 데 상파울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Petrobras는 최근 탈세와 편법계약 등 의혹을 받아왔으며, 협력기업을 통해 2006-08년 동안 정치자금을 제공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을 제공한 후보 중 50% 이상이 집권 노동자당(PT) 소속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브라질 상원은 2주 전 Petrobras에 대한 국정조사안을 승인했으며, 현재는 하원에서 각 정당이 조사위 구성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Petrobras에 대한 국정조사로 대서양 연안 심해유전 개발을 위한 자원 조달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룰라 대통령은 Petrobras 수익의 상당 부분이 사회구호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국정조사는 적절치 않을 뿐만 아니라 국익을 생각치 않는 행동”이라며 비난을 제기하고 있다.

조제 세르지오 가브리엘리 Petrobras 회장도 “국정조사는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 이미지를 해쳐 심해유전 개발 투자자금을 마련하는데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5/29>